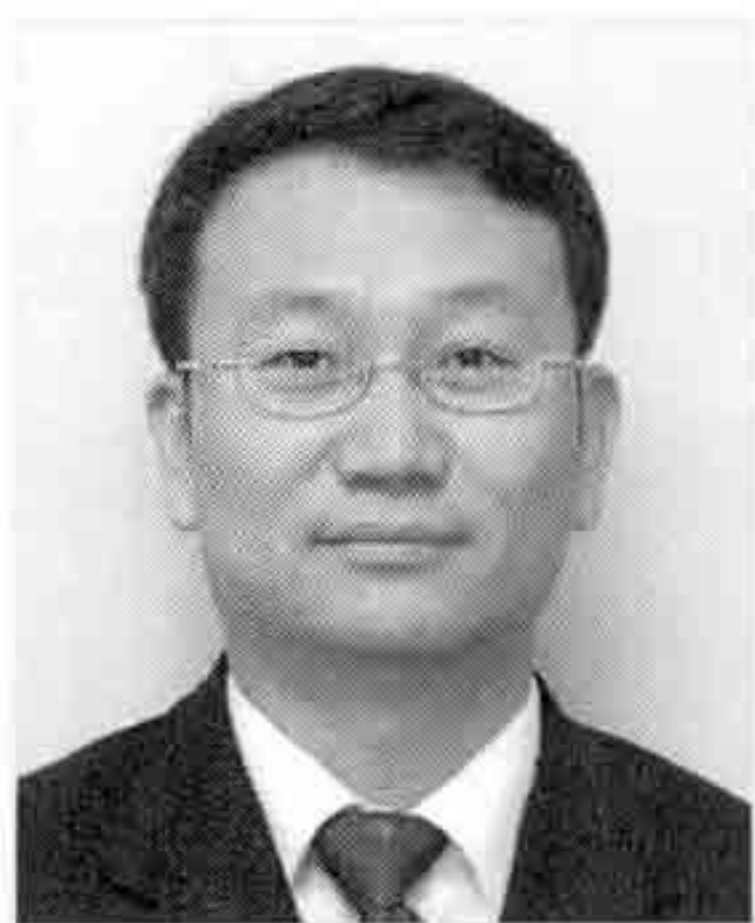


COLUMN

조류인플루엔자 공포감과 안전성



|||| 이 병 권 수의사무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북 김제를 시작으로 제주도를 제외하고 거의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여 6월 11일 현재 19개 시·군·구에서 33건이 발생하

였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재래시장에서 가금의 유통금지 및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발생농장 및 이와 관련된 농가 가금류의 살처분 매몰조치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5월 12일 이후 현재까지 의심신고 사례가 없어 HPAI가 종식되었나 하는 조심스런 추측해 보지만 그래도 아직 안심할 수는 없으며 긴장을 늦출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 B, C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며, 그 중 A형에 속하는 바이러스들이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A형 바이러스는 2개의 중요한 유전자 즉 HA유전자와 NA유전자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는데, HA유전자가 16개, NA유전자가 9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조합하면 16 곱하기 9 즉, 이론상 144개의 바이러스아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H5N1 바이러스는 HA유전자가 H5형, NA유전자가 N1형인 바이러스란 뜻입니다. H5N1형의 HPAI 바이러스는 '03년 말부터 현재(08.5)까지 전 세계 48개국 6,400여건이 가금류 및 야생조류에서 가장 많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가금류에서 병원성이 높고, 전파속도가 빨라서 발생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성이 강하다는 것은 조류에 강하다는 뜻이지 사람에게 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48개국 중 인체감염 사례가 있는 나라는 14개국에 불과한데 이들 나라는 국민 보건상태가 취약하며, 감염된 조류와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유럽, 우리나라, 일본 등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감염 사례가 없습니다.

지난 5년간(2003년~2008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383명이 감염되어 24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독감으로 한 해에만 25만 명~50만명이 사망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만에 하나 감염될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의 치사율은 높지만 실제 인체감염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 일반적으로 감염성 질병이 아닌 사고수준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현재까지 H5N1 HPAI의 인체감염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위생(외출에서 돌아온 후 손씻기 등) 및 죽은 조류를 만지지 않는 등



▶공휴일에도 계속 상황근무 중인 상황실 요원들

의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면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안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과거 독감바이러스에 의한 판데믹(Pandemic, 대유행전염병)이 세 차례(1918 스페인독감, 1957 아시아독감, 1968 홍콩독감) 있었지만 이러한 판데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면역이 없는 집단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인체에 감염되어 치명적이어야 하며, 사람에서 사람으로(human to human) 쉽게 전파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H5N1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전파되는 상태는 아니며, 국내의 사례를 보면 지난 '03년 이후 3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나 사람이 조류인플루엔자에 쉽게 걸린다면 매일 닭이나 오리와 접촉하는 전국의 양계 및 오리사육 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어야 하는데 아무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언론에 단지 그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포감을 조성하여 많은 양계 및 오리농가 등은 경제적인 피해로 인하여 언론 및 일부 정부당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류바이러스의 인체감염 사례는 주로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생활습관 및 환경이 HPAI에 감염된 조류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국가의 일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반 국민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연구원들은 24시간 가장 위험한 HPAI에 감



▶ 계속 밀려드는 의심시료들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중

염된 조류를 직접 만지면서 검사하고 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번 인체감염 사례로 오인받았던 살처분 농장에서 일한 군인은 폐렴으로 최종 진단되었습니다.

한편, HPAI에 걸린 닭들은 정상적으로 도축 출하가 힘들고, 감염된 닭은 계란을 낳지 않게 되므로 시중에 유통되는 가금육과 계란은 안전합니다.

또한, 만에 하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오염되었다고 하더라도 75℃에서 5분간 열처리시 바이러스가 모두 죽게 되므로 끓여먹으면 안전하고, 익힌 닭고기 등을 먹어서 HPAI에 걸린 사례는 세계적으로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아,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익힌 닭고기, 오리고기 및 계란 섭취로 인한 전염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하여 위생적인 닭고기, 오리고기 및 계란 등을 많이 드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초순 서울 광진구청 및 송파구청에서 HPAI가 발생한 이후 서울 및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참새, 까치 및 비둘기 등에 대한 검사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모두 HPAI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바 있어 날아다니는 비둘기 등에 대해서도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가재난형 질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전국적이며, 오리에서 폐사율이 높은 특징의 변이된 바이러스를 통한 인체감염 우려와 동남아시아에서와 같이 풍토병(endemic)화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종식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류인플루엔자가 무사히 마무리되어 국제적으로 청정국가로 다시 인증되기를 바라며, 저희는 끝까지 확실하게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너무 빨리 웃지 않고 나중에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